

은 위낙 수자적으로 바리
 畫家들, 既成作家로서
 도 작품 활동을 계속
 하고 있는 이가 극히
 드문 바리에 있어 해겨
 우기 30대에 들어선, 더
 는 畫廊과 권위 있는 평
 론가의 눈에 띄어 個人展
 을 마련하게 된 方惠子 양
 才媛 (方惠子 양 (30
 세) 。 그녀의 個展이 「생
 세」 제르맹·데·프레 근
 방의 「플로랑스·우스동
 • 브라운」 畫廊에서 지
 난 16일부터 오는 4월
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
 열리고 있다. (바로
 이 畫廊에서 南寬 畫
 伯의 두 번째 個展이
 있었다) 이 個展에



方惠子 양 바리서 個人展

評論家 꾸르띠용 씨 激勵序文

人이라는 사실이 나自
 身을 깨우쳐 준 것이
 『아래에, 方惠子 個人展
 에 불여진 「베에르·꾸
 르띠용」 씨의 序文을 간
 주려 소개해 본다.』
 된 이 젊은 한 국여성의
 첫 작품들을 볼 기회를 가
 졌던 것은 벌써 몇 년 전의
 일이다. 이 작품에 배
 어 있는 神秘, 불가사의
 의 힘을 지닌意味는 畫家
 로 하여금 끝, 이 畫家가
 繪畫를 통해 이야기 할
 인가를 가지고 있는 점
 은 여성이라는 確信을
 가지게 했다. 方 양은
 더 한층 그녀의 비
 전을 밀고 나갔다. 그
 녀의 東洋的인仙
 境은 甞인가를 甞
 꿰하려는 힘을 가
 졌다. : 힘은 보
 냈고 作品은 보다
 더 활짝 열린 후
 머니 티의 자국을 받
 아들이고 있다. 구
 리 또는 모래쉬인
 物體 등의 끌라아
 주에 의해 미묘하
 게 區分되어진 마
 르의 이들 作品을 보
 르면 나의 눈은 어
 觸角으로 변한다. 어
 만 그 觸角들이 作品들
 만 지고 있다는 印象을
 가지게 되는 것이다.
 그러나 이 畫家는 故國
 의 모든 品質을 간직
 했다. 그것은 결코 그
 림葉書의 그것이 아니
 라, 영원히 간직하고
 있는 어린날의 먼 세
 월을 結晶시켰을 때 追憶
 이 한루 結晶한 品質인
 다. : 李逸

「프랑스」의 저명한
 미술평론가 「베에르
 • 꾸르띠용」 씨 (씨
 의 著書로서는 「앵
 데방 당 美術論」 근자
 에는 「루오」論의 集
 大成의 感을 주는 「루
 오論」 등) 의 따뜻하고
 도 깊은 理解를 더 불
 은 序文이 불여져 있다.
 서울 美大출신인 양
 은 대학을 마치자 國
 立圖書館에서 첫 個展
 을 가진 후 1961
 年 곧장 바리로 떠났다.
 양은 「꾸르띠용」 씨의
 입을 빌어 그녀의 감
 회를 이렇게 토로하고
 있다. 「나는 「프랑스」
 에 와서 비로소 한국 사
 람임을 자각했다. 異邦

다. : 李逸
 李逸